

발 / 간 / 사



‘대한유방검진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대한유방검진의학회는 오기근 초대회장님을 필두로 우리나라 유방검진의 개척자 역할을 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04년 3월 25일 창설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11일, ‘제 1회 대한유방검진학회’를 개최하였고, ‘대한유방검진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현재까지 매년 정기학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 반기별로 1권씩, 총 42권의 학회지를 발간하였습니다.

우리 학회는 창립 초기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 춘계학회를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학회 전날인 금요일 저녁에 집담회를 개최하여 개최지 지역의 중례들을 발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회 당일 토요일 오전에는 ‘맘모버스’를 운영하여 지역 여성들 대상으로 무료 유방검진(유방촬영술과 판독)을 시행하는 행사를 진행하였고, 오후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오기근 초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척박했던 우리나라 의료환경에서도 유방검진의 전국적 확산과 정착을 위해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느껴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후학으로서 이 창립 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학회는 원로 선생님들 이하 회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영상의학과 회원 외에도 유방검진에 관심을 가진 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내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다양한 과의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학회에 가입하여 2024년 현재 약 700 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매 학회 때마다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토론하면서 유방영상진단에 대한 최신 지식을 넓혀 왔으며, 아울러 유관 학과인 외과, 내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성형외과의 석학들을 초대하여 강의와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재활의학과, 정신과 분야의 특강을 들으며 회원들 스스로를 위한 정신적, 육체적 돌봄과 채움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는 등 균형있는 학술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유방 질환에 대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유방검진에 대한 성적 향상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방암 조기진단을 위한 유방검진사업의 실행에 기여해 왔으며, 유방촬영의 품질관리와 판독의 질 향상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회 창립 이전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유방질환의 진료 및 연구에 헌신하여 학회의 초석을 마련해주신 원로 선생님들의 공로 위에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진료와 연구에 정진해 온 후학들의 열정과 노력이 쌓여 이뤄진 것이라 생각하며,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신 역대 임원들을 포함하여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학회 회원들의 열정적인 학술 활동이 우리나라 유방검진 수준 향상에 밑거름이 되었듯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우리 학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이제 창립 후 20년, 함께 한 역사와 업적을 되돌아보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 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학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미래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여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삼는데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집호 발간을 위해 짧은 기간 내에 원고를 써 주시고 귀한 자료를 보내주신 원로 선생님들 이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일을 맡아 추진해 주신 고은영, 조규란 편집이사과 여러 편집간사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한유방검진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특집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댁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박 영 미

대한유방검진의학회 회장